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포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사랑과 감사의 달 5월 교회 주요 행사

사랑부 수요성경공부 시작

화사한 꽃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드리워진 그늘이 교차하는 가정의 달인 5월은 또 3일 어린이주일, 10일 어버이주일로 지킨다. 어버이주일 찬양예배시간에는 가족찬양대회가 마련되어 있다. 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부 성경공부반도 5월 중 개설된다.

사랑부 수요 성경공부

6일부터 사랑부 성경공부가 실시된다. 사랑부(부장 김태기 장로, 지도 김성숙 전도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사랑부실에서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랑부는 주일 집회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으나 주중에 집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5월의 마지막 주일인 31일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인다. 이날 공동의회는 안수집사 중 세례교인의 직접선거에 의해 ??명의 장로를 선출할 예정이다.

목회자세미나, 김치세미나

진행 중인 제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도 매주 월요일 강남 YMCA에서 열린다.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세미나는 6월 1일까지 계속된다. 처음으로 두 차례 나누어 실시되는 김치신학세미나는 지난 16일 마포구 합정동

외인묘지내 유니온 교회당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와 신학생, 외국인 교직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데 이어 오는 5월 27, 28일 양일간 제주도 이기풍목사기념관에서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 25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리게 된다.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급식소 연다

빈약한자 구제를 교회의 3대 기둥 중 하나로 세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돕는 차원에서 "사랑의 급식소"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랑의 급식소 계획은 작년 11월부터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 급속히 증가한 노숙자와 실직자들을 초청, 매주 목요일과 주일 점심을 대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주 당회는 구제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를 주관부서로 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구제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사랑을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준

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회는 실직자와 노숙자를 위한 이 계획이 단순히 한 끼의 식사 제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준비중이다. 교회는 이번 일을 복음전도의 기회로 승화시켜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순례자 컬럼

아무것도 아닌 것일

너무나 쇠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는 황금이라도 입혀 정치도구로 둔갑을 시키면 그 위풍이 자못 당당하다. 우리 주변엔 우상을 만들어 치부하는 이가 있고 그 우상을 두려워 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탁하려는 이들도 있다.

복술업자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지금 부정부패를 일소하듯 우상과 술사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체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이고 속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풀잎의 이슬같은 인생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별 것이 아니듯 열강의 분노도 자연의 재앙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자가 되자.

새 예배당 소식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세부도면 완성

건축위원회는 23일(목) 건축설계를 맡은 (주)정림건축으로부터 새로 건축될 예배당 건축과 관련 세부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새 예배당 각 실의 배치 등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세부설계의 개요를 살펴 보면 대예배실은 지상 2, 3, 4층에 위치한다.

지상 1층에는 중예배실, 로비, 사무실 등이 위치하게 되며 지상 2-8층에는 소예배실, 찬양대실, 당회실, 전도회실, 기도실, 교육실, 분반공부실, 예비실, 준비실, 친교실 및 친교준비실 등이 들어간다.

또 지하 1-3층에는 주차장과 주차요원실 등이 배치되었다.



건축위원들이 (주)정림건축으로부터 새 예배당 세부설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사야

하나님을 본 이사야

6장 1-7절

이사야 선지자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성자 하나님이었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본 하나님은 성전에 옷자락을 가득히 채우시고 성전에 임재하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었습니 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영광과 찬송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심판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5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말 3:2).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슬퍼한 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4).

이사야가 자신을 이미 망한 사람이라고 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1.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은 모든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랍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졌는데 자신은 죄를 짓는 입술을 가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으며 죄 있는 사람은 찬양을 불렀다고 해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 3:2)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인격의 시금석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11)고 말씀하셨습니다.

2.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란 자기의 이웃과 동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만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인하여 울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바라보면

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고다'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4. 구속함을 입은 이사야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사 6:1-7)



이종윤 목사

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슥10:1).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40주야 동안 울며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신9:5).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울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느끼며 울니다. 이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민족과 나가서는 온 세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또 자신이 망했다고 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스랍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가 없고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 없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제가 지나갈 때 법제 속을 들 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습니다(삼상 6:20).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

자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씻어주십니다. 이사야의 죄는 그대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6-7절). 스랍 중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술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스랍의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져 있었다고 했는데 히브리말로는 뜨거운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게 되어 있습니다(출 20:24-25). 다듬지 않은 돌이란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것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은 스랍이 가져온 술병로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화저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성례

■지상강좌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

이 글은 3월30일 목회자세미나에서 배경식 교수(한일신대)의
강연중 결론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교회는 분명 사도행전적인 교회이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이면서도 로마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의 내적이며 신앙적인 문제들과 외적인 성장 그리고 선교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적인 교회란 평신도중심의 제사장적인 교회를 말한다.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행정만을 더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경건운동에서 보여지는 “교회안의 교회”(ecclesiola in ecclesia) 운동을 전개하여 평신도 자체적인 성경읽기와 연구, 신앙적인 저술활동, 찬양시의 보급, 선교운동, 그리고 사랑의 나눔과 공동체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경건성 회복에 관한 몇 가지의 제안을 해보려 한다.

첫째 신학의 재정립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예배 중심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인간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학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예언자적인 기능을 잃고 만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는 포괄적인 학문이어야 한다. 신학(Theology)은 이런 면에서 신-인-세계학(Theanthropokosmology)이다.

둘째 교회는 기독교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진 인간상을 가지도록 경건훈련을 시켜야 한다. 전통적 규범이 흔들리고 사고체계가 파괴되는 가치와 혼돈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와 선택, 그리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경건에 기초를 둔 교회는 교인들이 실제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임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구역예배, 선교회 등이다. 이 모임들의 폭을 더 넓혀 다양한 취미의 활동이나 삶의 문제를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통신을 통한 동호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넷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건훈련을 시켜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특수선교라는 차원에서 군선교, 기지촌선교, 해

양선교, 탄광선교, 농어촌선교, 생명의 전파, 외국인 근로자 선교등 여러 가지의 일을 해왔다. 이제 알콜중독자들, 마약중독자들, 동성연애자들, 에이즈환자들, 치매환자들, 이혼이나 가정파괴 등 분야도 교회가 나서 이들을 치료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준비이다. 독일의 통일이 있기까지 서독 교회들은 동독의 교회들을 여러 가지로 도왔다. 그리고 독일교회의 선교회는 매주일에 모여서 동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시로 바자회를 하고 선교 기금을 모으고 직접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내야 된다. 교회가 해낼 중요한 몫이 분명히 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의 식량 원조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두손 들고 나를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다. 선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먼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끼를 굶어서라도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성미를 모아서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에 대한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세뇌되어진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공산치하

에 있는 북한 백성들이 통일을 원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경건은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물러서는 않는다. 미지의 세계로 인식되어지는 21세기의 경건은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단절된 질서와 관계의 회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좌약된 생활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이 깨어져 버리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창3:17) 무질서의 세계가 전 우주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너희들 회개하라”(Penitentiam agite! 마4:17)는 공생애의 첫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루터 역시 이 말씀을 그의 종교개혁의 원리인 95개조항 1조¹⁾에 인용하였다.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통해 우리는 한국교회를 구체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4월 새가족 환영회

* 4월의 새가족 *

목진숙 김영희 김현자 김성택 장지은
이충남 김창순 백순옥 한승호 박순옥
정진상 김춘기 장승은 손종연 서영호
양혜은 한경희 김현숙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영혼의 창이 열리고

오하영(3교구)

백목련이 잎을 떨구던 날
봄비는 작은 키로 내려와
엄마처럼 내 심장에 누어있다

세상의 부서진 날개
깨어진 언어의 비밀은
십자가 따라가는
순교적 몸부림인가

하늘샘 가슴 깊은 곳
쏟아지는 눈물은
목마른 아이들의 파리 같은 노래소리

영혼의 창이 열리고
육체 안에 잠자던 또 하나의 내가

한 응금의 생명으로
우주를 진동한다

당신의 음성
사랑의 우레 소리에
귀가 열리고
파란 날개가 돌아나
새벽 하늘을 난다

환희의 절규
에스겔 골짜기의
오늘로
너와 나 새벽하늘을 날으리

사랑부와 중등부 연합 예배에서

■ 은혜나누기 ■

사랑부에 가서 배운 진정한 사랑

임관자(중등부)

저희 중등부가 사랑부에 다녀온 것을 전 지 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부에 방문하기 전 찬양연습을 하는 등 열심히 준비했지만 막상 사랑부에 가서 처음엔 두려움과 낯설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동을 하다가 아이

들이 안아도 놀라지 말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사랑부의 점심시간이 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낯설음을 없애기 위해 다 빨빨이 흘려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놀 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참 순진하고 착했습니 다. 점차 우리들과 다른 것을 전혀 느낄 수 없 게 되었습니다. 단지 몸이 좀 불편한 것 가지 고 차별대우 받는다는 것이 좀 슬펐습니다.

중등부 언니들은 우리 찬양팀에게 울동할 때 웃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웃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열심히 따라하는 맑은 얼굴로 웃어 주는 사랑부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 으며 모든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지으며 울동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는 눈물까지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사랑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장 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을. 그들은 우 리보다 더 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눈감고, 손을 뻗히며 찬송하고 울동하던 그들의 모습은 천 사였습니다.

이번에 사랑부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진정 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 다. 사랑부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당회장실에 들들 일이 있어 문을 열어 보았 습니다. 어둑 어둑해서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라곤는 생 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목사님께서 전 기를 아끼시려고 모든 스위 치를 내리고 책상의 스탠드

불빛만 밝혀 놓으신 채 글을 쓰고 계셨습니 다. 돌아서며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다니는 직장엔 집사님 한 분은 교회 건축헌금에 보태시겠다고 종이, 박스, 폐품 등등을 수집해 가십니다. 그 광경을 볼 때 마다 저는 여러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여러 모로 정착이 되 어 쓰레기 처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데도 주일 쓰레기 양이 100리터짜리 봉투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스테반회 회원들

■ 제언 ■ 천국시민의 삶과 쓰레기와...

이관규 집사

이 함께 청소를 하면서 쓰레 기 봉투를 볼 때마다 아지는 더 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그 냥 버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성도 각자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 리는 일에 좀더 적극적이 되어

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언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우선 쓰레기봉투의 사 용이 줄어들 것이니 많은 재정이 절약될 것 이고, 폐품을 재활용하는 일은 교회재정은 물론 나라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을 보 존하는 일에도 이바지하는 일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그리고 각 부서가 천국시민의 긍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언합니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새가족부= 2일(토) 교사와 새가족의 교제 를 목적으로 청계산 등반대회를 갖는다.

-김찬진-

◇ 청년부= 2일(토) 총동원 전도일로 모인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말씀과 교제 등 청년 들을 위한 잔치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5일 (화)에는 야유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치는-



■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⑤ 4월 27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IMF시대 목회자의 의식변화 (고무송 목사)

⑥ 5월 4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 (최래옥 교수)

동정

◆이종윤 목사는 28일(화) 총회주제위원회에 참석하며, 29일(수)엔 연세대 신과대학 채플을 인도한다.

◆김병숙 권사는 방배동 탐빌라트로 이사했다(☎ 594 - 4052).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김인숙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5월에 있을 교회 행사들을 위해
2. 장애인들과 사랑부를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